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 프레임 · 계시에 관한 현대의 견해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2부 '현대신학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제3장 '계시에 관한 현대의 견해', 약 73–80쪽(2부 머리말 포함)

##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먼저 2부를 '상황적 관점'으로 소개한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오늘의 신학적 환경을 살피는 자리라는 뜻이다. 그는 현대 계시관과 정통 계시관을 가르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지적 자율성'을 꼽는다. 지적 자율성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이성만으로 진리를 판단하겠다는 태도다. 그는 이 태도의 뿌리를 에덴의 타락에서 찾는다. 이어서 그리스 철학, 아퀴나스,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성경 비평학, 미국 주류 교단의 변화로 그 흐름을 따라간다. 결론은 이렇다. 교회는 공식 토론 한 번 없이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의 권위를 자율적 이성과 맞바꾸었다. 그 결과 초자연적 교리들을 지킬 근거도 함께 잃었다.

## 📜 절별 정리

### 📜 1. 들어가며: 세 관점, 그리고 '말씀'과 '계시'

프레임은 이 책의 2–4부를 자신의 세 관점에 맞춰 짠다. 2부는 상황적 관점으로, 자유주의 신학의 계시관과 성경관을 다룬다. 3부는 규범적 관점으로, 성경이 스스로 말씀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본다. 4부는 실존적 관점으로,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우리 마음에 닿는 방법을 다룬다. 용어 문제도 짚는다. 성경은 '계시'보다 '말씀'이라는 말을 훨씬 많이 쓴다. 그래서 프레임은 '말씀'을 더 좋아한다. 말씀은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행위이고, 계시는 그 말씀이 드러내는 내용이다. 다만 1650년 무렵부터 현대신학은 '계시'라는 말을 즐겨 썼다. 그래서 현대 견해를 다루는 이

사람을 부를 때는 그가 스스로 고른 이름을 쓰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 기준은 아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바르트처럼 이 꼬리표를 싫어할 사람도 자유주의자로 분류하겠다고 밝힌다.

1. 2부 = 상황, 3부 = 규범, 4부 = 실존 관점
2. 성경은 '계시'보다 '말씀'을 더 많이 쓴다
3. 말씀은 소통 행위, 계시는 드러난 내용
4. 현대신학 ≈ 성경의 절대 권위를 부정하는 신학
5. 바르트도 넓은 의미에서 이 범주에 넣는다

> **(이 절에서 저자가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성경이 '말씀'을 더 많이 쓴다는 것은 일반적 관찰로만 제시된다

## 📜 2. 갈림길은 '지적 자율성' — 에덴에서 시작된 생각

현대 계시관과 정통 계시관을 가르는 것은 결국 하나다. 지식의 영역에서 인간의 자율성을 긍정하느냐는 것이다. 지적 자율성이란 하나님의 계시에 매이지 않고도 그분이 만드신 세계를 알 수 있다고 보는 생각이다. 프레임은 이 생각이 사상사에 처음 나타나는 곳을 창세기 3장으로 본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더 나아가 스스로 판단할 권리를 내세워 하나님께 맞섰다. 그러니 자율성은 근대에 처음 나온 발명품이 아니다. 타락의 핵심 태도가 생각의 영역에서 드러난 것이다. (각주에서 프레임은 이 강조가 반틸에게서 많이 왔다고 밝힌다. 도예베르트의 '이론적 사고의 자율성' 비판도 참고했다고 덧붙인다. 다만 두 사람과 다른 점도 있다고 한다.)

1. 현대와 정통을 가르는 기준은 지적 자율성
2. 자율성 = 계시 없이 세계를 알겠다는 태도
3. 그 기원은 창세기 3장의 타락
4.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 판단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 대신 스스로 판단하기로 한 첫 사건. 지적 자율성의 원형으로 제시된다

[1]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

## 📜 3. 자율성의 어리석음: 합리주의와 비합리주의

프레임은 자율성이 모든 잘못된 결정 밑에 깔려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깊은 뜻에서 비이성적이라고 본다. 로마서 1:18에 따르면 사람은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 그런데도 그 앎을 억누르고 거짓으로 바꾼다. 우주의 주인에게 맞서는 것이 어떻게 현명할 수 있겠는가. 이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보좌를 차지하려 한 사탄의 어리석음을 닮았다. 자율적 인간이 가는 길은 둘이다. 하나는 하나님의 다스림·권위·임재를 아예 부정하는 길이다. 그러면 우주에 궁극적 의미가 없다는 비합리주의가 된다. 다른 하나는 그 주권을 피조물(우상, 자기 이성)에게 돌리는 길이다. 그러면 피조물에게서 신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합리주의가 된다. 둘은 동전의 양면이면서 서로를 부정한다. 합리주의자는 자기 마음을 최종 기준으로 삼을 근거가 없으니 결국 비합리적이다. 비합리주의자도 “의미는 없다”고 단언하면서 자기 마음의 최종 권위를 이미 전제한다. 그래서 자율성은 지식 자체를 무너뜨린다. 불신자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는 한다. 하지만 그것은 자율성 '덕분'이 아니라 자율성에도 '불구하고'다. 끝까지 일관되게 자율적이라면 그는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이 자율성은 도둑질·간음·살인·사기 같은 모든 죄에 들어 있다. 개인·가정·국가의 죄에도 들어 있다. 죄는 하나님이 없거나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가정하기

1. 자율성은 하나님을 알면서 거스르는 어리석음
2. 주권을 부정하면 비합리주의가 된다
3. 주권을 피조물에게 돌리면 합리주의가 된다
4. 둘은 동전의 양면이자 서로 모순이다
5. 불신자의 앎은 자율성에도 '불구하고'의 앎
6. 지성도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로마서 1:18**

사람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진리를 억누른다. 자율성이 무지가 아니라 거부임을 보여준다 (저자가 설명하는 '창조를 통한 앎'과 '거짓으로 바꿈'은 로마서 1:19-25로 이어지는 내용)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로마서 1장**

불신자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근거

[1]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5]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

“불신앙의 사고 안에서 합리주의와 비합리주의는 동전의 양면이지만 이 둘은 서로를 반박한다.”

## 📜 4. 철학의 탄생에서 아퀴나스까지

고대 이교도들은 우상을 만들고 어느 정도의 궁극성을 부여했다. 그러면서도 자기 신들이 궁극적인 다스림·권위·임재를 지니지 못했다는 것은 알았다. 그런데 주전 600년 무렵 소아시아의 그리스 사상가들에게서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같은 이들이다. 그들은 '철학자', 곧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불렸다. 프레임은 지혜 사랑 자체는 좋은 것이고 그리스도인도 그런 의미의 철학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이 이전의 종교 교사들과 달랐던 점은 지적 자율성에 대한 헌신이었다. 이들은 종교와 전통의 권위를 버리고 인간 이성만 최종 권위로 세웠다. 그 결과 그리스 철학은 앞서 본 역설에 빠졌다. 이성을 최종 권위로 삼았다는 점에서 합리주의였다. 세계 안에 제대로 된 질서의 근원이 있음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비합리주의였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 하지만 본래 무질서한 세계(질료)에 이성의 질서(형상)를 덧씌우는 일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과제였다. 그리스도의 부활 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그리스 철학을 활용했다. 성경적 세계관에 충실하려고 그것을 크게 고쳤지만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은 자연 이성만으로 하는 철학과 계시에 호소하는 신학을 나누는 데서 시작한다. 두 영역은 겹치지만, 이성의 영역에서 계시가 맡는 역할은 다소 혼란스럽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적어도 어떤 영역에서는 지적 자율성이 가능하고 합리적이라고 암시한 셈이 되었다.

1. 주전 600년 무렵 그리스에서 자율적 사고 등장
2. '철학자'라는 이름은 자율성 헌신 때문에 붙었다
3. 지혜 사랑으로서의 철학은 그리스도인도 할 일
4. 그리스 철학도 합리–비합리 역설에 빠졌다
5. 아퀴나스: 이성과 계시의 구분이 자율성 여지를 줌

> **(이 절에서 저자가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앞 절의 성경적 분석(창세기 3장, 로마서 1장)을 철학사에 적용한다

프레임은 17세기를 주전 600년의 철학 탄생과 맞먹는 변화로 본다.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은 성경과 그리스 철학을 종합해 하나의 기독교 철학 전통을 세웠다. 스콜라 신학은 중세 대학에서 논리적 체계로 신학을 정리한 방식이다. 그런데 탈레스가 그리스 종교 전통을 버렸듯이, 데카르트도 이 스콜라 전통을 버렸다. 데카르트는 절대 확실성을 얻으려고 '명석하고 판명하게' 참으로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로 했다. 그러니 철학 전통도 교회의 가르침도 모두 의심의 대상이었다. 남은 단 하나의 확실한 것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였다. 그는 여기서 출발해 연역으로 지식 전체를 쌓으려 했고, 그 안에 신의 존재 증명도 넣었다. 그는 가톨릭 신자를 자처했다. 그러나 그의 체계는 인간 자율성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프레임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비성경적이라고 평가한다. 이후 지적 자율성은 몇몇 예외를 빼면 철학의 표준이 되었고, 신학에도 깊이 스며들었다. 스피노자는 『윤리학』에서 기하학처럼 철학을 전개해 데카르트의 기획을 더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1670년의 『신학정치론』에서는 이를 성경에 직접 적용했다. 그는 미신에 맞서 사상의 자유를 지키려 했다. 그가 내세운 주장은 이렇다.

- 바르게 해석된 성경은 이성을 완전히 자유롭게 한다.
- 이성의 지식도 성경만큼 계시를 담고 있다.
- 예언은 이성이 닿지 못하는 지식을 줄 수 없다.
- 기적은 이성이 아는 법칙을 어기므로 일어날 수 없다.
-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는 전통도 부정한다.

그의 제안은 결국 성경을 고대 문헌으로 읽고 이성의 판단 아래 두자는 것이었다. 그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은 하나님이 이성의 결론을 승인하신다는 뜻에서일 뿐이었다.

1. 17세기는 철학 탄생에 버금가는 전환점
2. 데카르트: 모든 것을 의심하고 '나'에서 출발
3. 신자를 자처해도 기초가 자율성이면 비성경적
4. 스피노자: 성경을 이성의 판단 아래 둔다
5. 예언과 기적을 부정하고 모세 저작도 부정

> 스피노자가 부정한 내용(예언, 기적, 모세오경의 모세 저작)이 곧 성경의 자기주장이라는 대비가 깔려 있다

## 📜 6. 비평학의 계보, 그리고 반대편에 선 학자들

스피노자의 성경 접근은 같은 17세기의 홉스, 시몽 같은 이들과 비슷했다. 이 방식은 빠르게 주류 학계 신학의 지배적 견해가 되었다. 17세기 영국의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자들(커드워스, 휘치코트)도 이성의 우위를 내세웠다. 체버리의 허버트 경, 틴들 같은 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신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뒤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보고 이성 종교를 내세운 사상이다. 이들은 볼테르, 디드로, 레싱으로 대표되는 18세기 계몽주의의 선구자였다.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는 독일이 성경 비평을 이끌었다. 라이마루스, 슈트라우스, 바우어, 벨하우젠, 바이스, 슈바이처, 불트만 같은 이름이 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크로산, 펑크, 보그 등이 참여한 '예수 세미나'가 신약의 무엇을 믿을 수 있는지 발표해 언론에 오르내린다. 이들 중에는 성경을 비교적 긍정하는 이도, 부정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프레임이 보기에 누구도 '자율적 추론을 받아들여도 되는가'라는 핵심 문제를 진지하게 따지지 않았다. 자유주의 안에서 자율성은 토론할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전제였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학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교회는 스피노자 이전에 늘 그랬듯 성경의 권위를 지켰다. 프레임은 헹스텐베르크, 카일, 델리치, 잔, 워필드, 로버트 딕 윌슨, 보스, 메이첸, 래드, 브루스, 영, 클라인, 스톤하우스, 카슨, 보컴, 블롬버그를 꼽는다. 자유주의 진영의 좁은 학문 정의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분명히 자격 있는 성경학자라는 것이다.

1. 스피노자식 접근이 빠르게 학계 주류가 됐다
2. 이신론, 계몽주의, 독일 비평학, 예수 세미나로 이어짐
3. 비평가들 사이에도 긍정과 부정의 차이는 있다
4. 자율성은 검토 없이 전제로 받아들여졌다
5. 성경 권위를 지킨 자격 있는 학자들도 많다

> **(이 절에서 저자가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 7. 토론 없는 교체: 대학, 교회, 오번 선언

자율성을 받아들인 학자들이 주요 대학의 교수진을 차지했다. 프레임이 강조하는 것은 이 일이 아주 빨리, 아무 학문적 논쟁 없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계시의 권위 없이 이성을 써도 되는지, 대학이 오랜 계시에 대한 헌신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핵심 인물들이 그냥 새 관점으로 가르치기 시작했고, 눈에 띄는 저항도 없었다. 그들은 후계자에게도 같은 전제를 물려주었고, 대학 정책도 큰 역할을 했다. 보수주의자들은 자신이 무엇에 공격당하는지조차 몰랐다. 목사들이 대학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자유주의 견해는 곧 교회로 퍼졌다. 그래서 19세기 말에는 미국 주류 교단들이 자유주의를 용인했다. 1924년 미국장로교(PCUSA) 목사 1,274명이 '오번 선언'에 서명했다. 이 선언은 다섯 교리를 정통의 시금석으로 삼는 것을 거부했다. 다섯 교리는 성경의 무오성, 동정녀 탄생, 대속적 속죄, 부활, 그리스도의 기적이다. 1930년대에는 교단 선교사들이 이 교리들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한 목사들이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 자율성에 대한 헌신이 이 교리들을 '선택 사항'으로 만든 것이다. 많은 지도자는 이 교리들이 문자 그대로는 틀렸다고 보았다. 자유주의 쪽은 '관용'을 내세웠다. 그러나 정작 거기 반대한 지도자들은 교회 회의에서 존중도 권한도 얻지 못했다.

1. 대학 교수진이 바뀌는 데 공개 토론은 없었다
2. 대학에서 배운 목사들을 통해 교회로 퍼짐
3. 19세기 말 미국 주류 교단이 자유주의 용인
4. 1924년 오번 선언: 다섯 교리를 '선택'으로
5. '관용'을 외쳤지만 반대자에게는 불관용

> **(이 절에서 저자가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역사 서술 단락

## 📜 8. 팥죽과 장자권: 교회가 잃은 것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회 회의도, 진지한 토론도 없었다. 1650년 무렵부터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 대신 자율성을 원리로 삼았다. 이 새 '교리'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 자율성을 전제하면 삼위일체나 두 본성 같은 초자연적 가르침을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 동정녀 탄생, 기적, 속죄, 부활, 재림도 지킬 수 없다. 메이첸은 『기독교와 자유주의』(1923)에서 자유주의가 성경·하나님·그리스도·속죄·구원·교회에 대한 역사적 기독교의 가르침을 거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어떤 이들은 교리를 대놓고 버렸다. 다른 이들은 상징으로 재해석했다. 어느 쪽이든 교리는 자율적 이성의 잣대에 맞춰야 했다. 프레임의 결론은 분명하다. 이 교리들이 참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기 때문에 참이다. 자율적 이성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 오히려 인간 이성이 자율적이라면 성경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창조주라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피조물의 자율성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율적 이성은 합리–비합리의 모순에 빠져 모든 지식을 무너뜨린다. 그러니 어떤 교리도, 사실상 어떤 진리도 그 위에서는 증명될 수 없다.

1. 자율성 채택은 니케아·칼케돈급의 교리 변화
2. 그런데 공의회도 토론도 없이 일어났다
3. 자율성 위에서는 초자연적 교리를 지킬 수 없다
4. 교리는 하나님이 증언하셨기에 참이다
5.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의 자율성을 배제한다

> **창세기 25:29-34 (저자는 장절 없이 암시만 함)**
>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 이야기. 눈앞의 '자율적 이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상속을 버린 교회를 빗댄다
>
> **창세기 25:29-34** 29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30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31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2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율적 이성이라는 팥죽을 얻기 위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이라는 장자권을 포기했다.”

## ⚖️ 오해와 반론

## 📖 용어

**지적 자율성**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고 내 이성을 진리의 최종 기준으로 삼는 태도. 일상에서 말하는 '자기 주도성'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인격적 말씀)**
하나님이 직접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소통. 프레임은 '계시'보다 이 말을 더 선호한다.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 보여 주는 내용.

**상황·규범·실존 관점**
같은 진리를 세 각도로 보는 프레임의 틀. 상황은 세계와 환경, 규범은 하나님의 기준인 성경, 실존은 내 마음과 반응이다.

**주재권 속성(다스림·권위·임재)**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말의 세 측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최종 권위를 가지시며, 늘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합리주의**
인간 이성(또는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 없이도 확실한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입장.

**비합리주의**

**전제주의**

모든 사고는 무언가를 최종 기준으로 먼저 깔고 시작하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반틸의 변증 방법.

**이신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뒤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보고, 이성으로 아는 종교만 인정하는 17–18세기 사상.

**성경의 무오성**

성경이 그것이 말하는 모든 것에서 틀림이 없다는 교리.

## 🔗 다른 책과 닿는 곳

## 💬 청년의 삶으로

## ✅ 이 장의 결론

- 현대 계시관과 정통 계시관을 가르는 기준은 '지적 자율성'을 받아들이느냐다.
- 자율성은 에덴에서 시작된 죄의 태도다. 하나님을 알면서 억누르는 어리석음이고, 합리주의와 비합리주의의 모순으로 지식을 무너뜨린다.
- 이 원리는 그리스 철학과 데카르트를 거쳐 성경 비평학의 당연한 전제가 되었다. 그리고 토론 없이 대학과 교회를 바꾸었다.
- 그 결과 교회는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이라는 상속을 자율적 이성이라는 팥죽과 맞바꾸었다. 초자연적 교리를 지킬 근거도 함께 잃었다.
-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기에 참이다. 자율적 이성은 그것을 증명할 수도, 판단할 자격도 없다.

##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5편 · 계시를 뒤집은 현대신학 · 이성·역사·체험이 말씀 자리에 앉다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